

광주문학상에 서용좌·이돈배·서연정씨 선정

시·소설 등 문학발전 뚜렷한 공적...1000만원씩 창작 지원



광주문학상을 수상한 서용좌, 이돈배, 서연정씨.

광주시는 광주 문화예술상 문학상 심사위원회를 개최, 박용철·김현승·정소과 문학상 수상자에 서용좌·이돈배·서연정씨를 각각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창작지원금 1000만 원과 상장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식은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문학상은 광주 출신 시인 박용철·김현승·정소과 선생의 문학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제정됐다.

박용철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서용좌 소설가(전남대 독문학과 명예교수)는 2002년 한국작가교수회 신인상으로 등단, 그동안 장편소설 '숨' '흐릿한 하늘의 해' '표현형' 등의 단행본을 출판했으며 제33회 펜문학상·펜문화활동상·제8회 이화문학상을 수상했다.

김현승문학상 수상자에는 이돈배 송원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전남 합평 출신인 이돈배 명예교수는 2010년 계간 문예시대에

시, 2012년 문학미디어에 평론으로 등단해 '황새의 눈' '궁수가 쏘아 내린 소금화살' 등의 시집을 발간했으며, 한국현대시작품상·영랑문학대상을 수상했다.

정소과문학상 수상자에는 서연정 시인이 이름을 올렸다. 서연정 시인은 광주 출신으로 1997년 중앙일보 지상시조백일장 연발장원, 199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조부문 당선으로 등단해 '먼 길' '문과 벽의 시간들' 등 시집을 발간했으며 대산창작기금·오늘의시조시인회의 젊은시조시인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시가 주최하는 박용철·김현승·정소과 문학상은 시·소설 등 문학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문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00년 제정됐다.

/조일상 기자

포토뉴스



광주은행, 아동복지 유공기관 '광주시장 표창' 수상 광주은행은 지난 11월 31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관 '제39회 후원자·아동 만남의 날' 행사에서 아동기관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광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권현만 기자



청암대 간호학과 동문회, 후배들에 장학금 전달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동문회가 간호과 4학년 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문회 회장단은 장학금을 통한 선후배 사랑의 전통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동문회의 뜻을 전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전남의사회 '이주민 찾아가는 진료'...사랑의 인술 펼쳐

보름간 순천·여수·나주시 외국인 이주민 700명 진료



전남의사회가 지역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인술을 펼쳤다.

1일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순천의료원, 여수시 가족센터, 나주시 가족센터를 방문해 16개국에서 온 이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진료 봉사'를 실시했다.

진료 봉사 과정에선 선제적 예방 조치로 독감 접종과 결핵 검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여기에 이주민 국가별 모국어로 번역한 약품 사용 설명서를 동봉한

구급약품 7종도 지원했다. 구급약품은 언어 소통이 어렵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이주민들이 응급 상황 발생 시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장인 이희수 해평의원 원장은 "휴일에 나와 진료 활동에 함께 참여해 준 100여명의 회원 봉사자들에 감사 드린다"며 "선주민과 이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 사회 구현에 전남도의사회가 앞장서 가겠다"고 말했다.

진료 서비스를 받은 결혼이주민 여성 B씨는 "일하느라 평일에 병원 갈 시간이 없었는데 자녀까지 포함해 무료 독감 접종을 받았고, 구급약품까지 지원받게 돼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 호 기자

광주교통공사 김민지씨 여성 최초 우수기관사 선정



광주교통공사는 올 한 해 승객 안전과 친절 서비스 등 최고의 운전기량을 펼친 우수기관사로 김민지·양동석 기관사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여성 기관사가 우수기관사로 선정된 것은 김 기관사가 최초다. 현재 교통공사에는 72명의 기관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 기관사는 4명이다.

김 기관사는 2020년 공제 9기로 입사해 현재까지 6만km 무사고를 기록한 모범 기관사다.

김 기관사와 함께 우수기관사로 선정된 양동석 기관사는 2016년 공제 5기로 입사, 현재 무사고 17만km를 기록 중인 베테랑이다.

두 기관사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 확보를 위해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매년 승무 직원 대상 이론 및 기술실기 등 운전기량, 응급조치 능력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사를 선정하고 있다.

/순천=조순의 기자



(유)민음한우, 일로읍에 사골육수 600개 기탁 (유)민음한우가 '제2회 일로읍 노인회'를 맞아 사골육수 600개를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일로분회에 기탁했다.

(재)담양장학회 장학금 기탁 이어져

투썸플레이스 담양백동사거리점·국토정보공사 담양지사



(재)담양장학회에 지역인재를 위한 투썸플레이스 백동사거리점은 지난 11월 17일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담양=조순의 기자

서구, 10월의 MVP 공무원 선정

풍암동 행정복지센터 정보송 주무관·고령친화팀



서구는 '10월의 MVP 공무원'에 풍암동 행정복지센터 정보송 주무관을 선정했다. 정보송 주무관은 풍암동 B '힐링 쉼터 건강마을 풍암' 아이디어를 제안해 풍암동의 색깔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건강마

를 '행복합창단' 및 '힐링 건강걷기' 등 풍암동 B와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제15회 교통·사회 안전대추전'에서 풍암동 주민자치회가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령친화팀은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스포츠댄킹, 라인댄스 등 새로운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 경로당 회계교육을 실시해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특히 서구만의 차별화된 어르신 복지정책을 실시해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의 성과를 올렸다.

/조순주 기자

‘107세·100세’ 나주시 장수상 시상

윤병태 시장, 박순덕·윤태정 어르신 찾아 상패 전달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를 뜻하는 '상수'(上壽), 100세를 넘긴 나주지역 두 어르신이 상패와 꽃다발을 품에 안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나주시는 제29회 시민의 날을 기념해 올해로 107세를 맞은 남평읍 박순덕 어르신, 100세인 산포면 윤태정 어르신에 장수상패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장수상은 지난달 30일 나주문화에 슬하관에서 열린 제29회 나주시민의 날 기념식 상훈 중 하나다.

최고령에 가까운 연세에도 평소 근면한 생활로 귀감이 되어온 지역 어르신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매년 시상한다.

두 어르신은 거동이 가능한 상태지만 고령임을 감안해 윤병태 나주시장이 각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시상식을 진행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지는 무대 위는 아니었지만 가족과 이웃, 2곳 지역 면장과 이장 등이 참석해 함께 축하하며 진한 감동을 자아냈다.

순천대-(주)박셀바이오, 업무협약 체결

순천대학교 글로벌 대학30 선정·운영 지원 협력



순천대학교는 (주)박셀바이오와 '순천대학교 글로벌 대학30 선정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주)박셀바이오는 2010년 설립된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R&D 전문 기업으로 인체의 고형암간암, 폐암, 대장암, 유선암(다발성) 및 난관암의 유선종양·림프종을 치료하는 항암제 개발에 힘쓰고 있다.

박셀바이오는 2020년 기술특례 코스닥 상장 이후 2022년 10월 전

남도 바이오기업 대표 성공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반려견 전용항암제인 '박스루인-15'를 개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등 반려견 항암 치료제 선두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다.

앞서 순천대는 지난 3월 약학대학과 (주)박셀바이오의 실무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부터 약학과 학생들의 제약산업 심화 실무실습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상의 '노사화합 스크린골프 대회' 개최

기업인의 날 기념...49개팀 98명 출전해 기량 겨뤘



광양상공회의소는 '제2회 광양시 기업인의 날' 기념하여 '노사화합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4일간 토너먼트로 진행, 광양시 관내기업의 노사로 구성된 49개팀 98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경기결과 우승 (주)드림피아이우진, 권양진팀, 준우승 (주)한진(택석주, 손창배)팀, 3위 (주)포스코이앤씨

(현주향, 김범준)팀, 4위 (주)효성(김대형, 김성훈)팀으로 결정됐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대회기간 동안 회원사간의 교류와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에 즐거움이 컸다고 하며 내년의 대회를 기약했다.

광양상의 이백구 회장은 참여해 주신 선수와 지원해 주신 기업에 감사의 표하고 노사의 화합과 기업 간 교류에 더 도움이 되는 대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광양=조순의 기자